

최근 우리나라에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노년'에 의한 '진'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전 인구의 8.7%로, 약 420만 명 정도가 된다. 우리나라는 매일 65세 이상의 노인이 580명씩 탄생하고 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파생되는 사회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노인인력 활용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선 노인인력 활용을 건강하고 건장한 노인인력으로 구분하고 또 빈곤한 노인과 중산층(이상)의 노인으로 분류했을 때 건강하면서 빈곤한 노인에게는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 재취업을 비롯한 인력활용 정책이 있어야 한다. 건강하면서 중산층(이상)의 노인에게는 여가활동, 자원봉사 등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건강치 못하면서 빈곤한 노인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주는 혜택을 주어야 하고, 건강치 못하면서 중산층 정도의 여유 있는 노인에게는 유료나 실비요양시설에서 편안한 케어를 받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인생에서의 4고(四苦)가 생, 노, 병, 사라면 노인들의 4고는 빈곤, 건강 약화, 소외와 역할의 상실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은 빈곤과 건강문제일 것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노인



### 불자 세상보기

황진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 노인들의四苦

들은 대한민국 5천년의 역사에서 가장 힘든 시절을 보낸 이들이다. 일제시대에 태어나 직접 총을 들고 전쟁을 치르며 갖은 고생을 하고, 전후에는 쌀과 눈물로 이 나라의 건국과 경제개발을 이룩해 낸 세대이다.

노인에게 빈곤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140만 명 중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29%를 차지한다. 게다가 자녀가 있다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대상에서 제외된 노인까지 합치면 실로 엄청난 숫자이다.

현재의 노인들은 노후준비를 해 온 세대가 아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 조사가 의하면 75%가 노후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답한다. 또한 한달 용돈을 5만원 미만 쓰는 노인이 29%, 5-10만원 미만인 32%로 전체 노인 중 62%가 10만원 미만의 용돈을 쓴다. (리서치 앤 리서치 조사) 또 노인 중에서 연금을 받는 노인은 9%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노인들 가운데 건강하고 빈곤한 사람들을 사회에 재취업시켜야 하는데 이와관련된 사회적 제도와 장치는 없는 실정이다.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 2-6%를 고

용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라서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다.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서도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에서 경제적 어려움(29.3%)이 건강문제(23.4%)나 외로움, 소외감(20.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면서 그들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첫째, 정부는 산업인력정책상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고 인구구조에 따른 연령계층의 중장기 수요 계획이 있어야 한다. 둘째, 청년취업선 선다를 활성화 하고 노인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물론 노인인력 활용이 가능한 기업체를 개발하여야 한다. 다섯째, 노인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세금감면, 융자, 보조금지급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인력의 보고(寶庫)는 노인인력과 여성인력이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우리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좌표라고 믿는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불자의 눈

한 사회의 건강함과 건전성을 무엇으로 측정 할 수 있을까. 자비와 사랑, 이웃에 대한 선의의 관심, 아낌없이 주는 보시의 실천 함량이 그 척도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계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올해 처음 시작한 골수기증 등록 캠페인의 높은 성과는 아직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낙관하게 해 주는 하나의 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 초 동국대 경주 캠퍼스에서 교수 학생 등 5백여 명이 골수기증을 등록하였고, 서울 종로 거리 캠페인에서는 3백여 명의 시민들이 동참해 1천8백여 명을 넘겼다. 이에 연말 목표치를 2천5백 명으로 올리는 등 기증 캠페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불치의 병으로 알려진 백혈병에 타인의 골수기증은 유일한 치료방법이다. 그러나 유전자일치율이 낮아 현재 환자 80% 이상의 치료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20만 명의 기증 등록자가 있어야 한다.

## 골수기증 그 찬란한 '나눔'

지금 전국적으로 기증을 위해 등록한 사람은 5천3백여 명. 치료율을 높이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다른 장기와 달리 건강한 사람이라면 부작용 없이 몇 번이라도 골수를 기증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전자 일치 문제 때문에 등록자 수가 치료율에 비해하게 된다. 홍보의 폭을 넓힌다면 보다 등록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캠페인 횡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은 그런 의미에서 적절해 보인다.

골수기증 뿐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거둔 '나눔'의 성과 또한 적지 않다.

이밖에 불교계에서 '나눔'의 캠페인은 요즘 들어 확산되는 느낌이다. 본지가 연중 캠페인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눔에 손잡기'에 대한 호응도가 그렇고 부천 석왕사, 서울 봉은사 등이 이웃 사랑 실천 단체인 '아름다운 가게'와 손잡고 펼치는 '나눔'의 활동도 돋보인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상대방에 상처 주는 구호들이 난무하는 오늘의 '병든 사회'. 지금 우리에게 과연 '희망은 있는가?'라는 물음에 바로 이러한 나눔과 자비 보시의 실천이 희망이며 불교는 그런 캠페인의 중심에 서 있음을 자각하고 앞으로 그 성과를 더욱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 김장식(칼럼니스트)



### 이렇게 들었다

카드대란을 보며

아난이 촌나라는 사문에게 말했다. "외도(外道)가 분쟁을 일으키려 한대도 같이 싸우지 마라. 분쟁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고뇌를 맛보게 할 것이며, 심지어 모든 천인들에게까지도 이로움이 없으며 오히려 고뇌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식정인연경>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서온 비씨카드와 이마트간 수수료 분쟁이 끝내 파국에 이르렀다. 비씨카드의 당초 주장한대로 9월 1일부터 이마트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했다. 이에 맞서 이마트는 즉시 비씨카드와의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고 전국 65개 점포에서 비씨카드를 받지 않고 있다. 현금 보다는 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요즘 중간에서 끌당먹는 것은 소비자들이다.

문제는 수수료 분쟁이 이 두 업체간의 줄다리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KB카드와 삼성카드, LG카드 등도 내년부터 수수료를 인상할 방침이며, 이에 맞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도 가맹점 계약 해지를 단행한다고 밝혀 추서 대목을 앞두고 혼란이 예상된다.

카드사와 가맹점들은 자사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주 고객인 소비자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번 분쟁으로 인해 생기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생각한다면 양사는 양보를 통해 윈윈한 타협을 이루어야 한다. 부처님 말씀대로 모든 분쟁은 또 다른 분쟁을 양산시켜 많은 사람들을 곤란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가족이나 경제상황이 나쁜 마당에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해 소비심리마저 위축시키면 더욱 큰일이다. 눈앞의 이익만을 쫓지 말고, 먼 안목으로 소비자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분명 현명한 타협점을 금방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자사의 이익을 위한 치졸한 분쟁은 이제 그만 그쳐야 한다.

■ 김주익(해부부 기자)

###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 인재봉사 시급하다

고교종교교육 현황이 심각하다고 한다. 서울 시내 289개 고등학교 중 기독교 재단 학교가 59곳인데 비해 불교재단 학교는 단 3곳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다가 10-20년 후 세상이 운동 기독교인으로 넘쳐는 게 아닐까.

물론 현행법상 종교 재단 학교라 할지라도 학생들에게 어떠한 종교적 행위나 활동을 강요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근 교육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종교 재단 학교들이 정규 교과시간과 교과 외 시간에 상당량의 종교행위와 활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얼마 전 교내 종교적 행위를 거부하다 퇴학 당한 강석 학생의 예를 굳이 들지 않아도 말이다.

무엇이 중요한가? 불심만 확고하다면 사찰도, 시민들을 끌어당길 문화행사도 사실 필요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 불교계는 결지장에 바빠 정작 중요한 것을 놓이고 있는 듯 하다. 불자 없는 불교가 존재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대중을 부처님 이끄는 길로 이끌기 위한 포교의 핵심은 어린 청소년이 돼야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불교계가 서둘러야 할 것은 인재봉사라야, 종자돈을 모아 장학회를 설립하고 학생들을 돕고 있는 어느 스님의 소식을 반가우면서도 안타깝게 느껴지는건 이러

한 일이 불교가 전체가 아닌 일부 스님들의 노력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박기용(영주 동구 소재동)

#### 큰스님, 법어 좀 쉽게 해주세요

최근 '현대불교'에서 하안거 해제를 맞아 방장 스님들이 내리신 해제법어를 보았다. 수좌들에게 주시는 법문이라든지 우리 일반불자들에게는 난해하게 느껴졌다. 결제(해제법문)는 그렇다 하더라도 해나 부처님오신날에 주시는 법어도 우리 중생에게는 어렵기 마찬가지다.

오랜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음이니, 우리에게 재가불자들에게는 청량한 채찍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큰스님들의 법어는 의미를 새기고 싶어도 언감생심일 뿐이다. 법어를 받아들면 곤혹스럽기 그지 없다. 한문 형식의 어투와 모호한 의미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법어라도 불자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먼 산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의 수준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재가불자도 알아듣지 못하는 법문을 일반 국민들은 알 수 있을지 걱정이다.

큰스님들의 법어는 중생들의 광량한 정신을 메워주는 청량한 울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중생들을 위해 근거에 맞는 법문을 내려주길 고대한다. 허미진(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 민영교도소 남의 일 아니다

최근 김승규 법무부장관이 민영교도소를 확대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수용한계를 넘은 교도소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반가운 일이다. 정부에서 확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도소를 민간에 일정 부분 이양해 자율적으로 재소자를 교화한다는 것은 사회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긍정적이다.

그런데 우리 불교계에서는 움직임이 없다고 한다. 개신교 재단인 '아가페'의 경우, 수 년 전부터 민영교도소를 준비해와 500-600명 규모의 시설을 내년쯤에는 개원한다고 하는데도 불교계에서는 반응이 나오질 않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불교계 내부의 불사문제를 생각해보면, 영원히 불가능하기만 한 액수는 아닐 것이다.

브라질에서는 이미 1984년에 가톨릭에 위탁한 교도소의 출소자 재범율을 4%까지 낮춘 경험이 있다.

우리 불교계도 '상구보리 화해중생'의 부처님 가르침을 여법하게 실천할 수 있는 민영교도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원희(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 '연대' 민영 심민섭



## 2004년도 정토불교 체육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1. 본 교육연수원의 설립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홍보하기 위한 출가수행자 및 법사들의 포교방편과 스님들의 자활력을 갖추도록, 병고에 시달리는 중생구제와 더불어 보시금이나 불전에 의존하지 않고, 주며 베푸는 따뜻한 스님을 양성키 위해 정토외교 의사의외의 대화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유능한 '카이로프락터'로서의 정토교육을 힘쓰고 있다.

2. 교 과 목 : 카이로프락틱 교정 이론 및 실기(해부학, 스포츠및사지, 근육학, 운동처방 포함)  
디스크(목, 흉추, 요추, 선추), 오십견, 두통, 관절통, 편마비 등의 교정 방법을 미국 팔머대학의 교재로 확실히 교육시킴

3. 과 정 : 2급과정 교육기간 2개월(총 108시간) 지도자 자격증 발급  
1급과정 2급과정 수료자로서 교육기간 1개월(총 54시간), 카이로프락틱 미니 플레이션

4. 모집방법 : 2급과정 30명(선착순 마감)  
●지원자격 : 출가수행 스님 및 법사, 불자  
●입학금 및 강의료 : 출가수행 스님으로서 승적증명서 제출자는 무료 (단, 식대 및 교재대 20만원)  
●원서접수 : 2004년 9월 2일 ~ 9월 25일 까지

5. 입학일시 : 2004년 10월 4일 (월요일) 13시

6. 원서교부처 : 정토불교 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교학과 042)635-8186, 8187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241-14 호산빌딩

## 사단법인 정토불교 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 관상학 특강반 모집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 지선법사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사주로 볼 수 없는 찰색! 특강반에서는 기초와 이론을 속성강의  
완벽한, 실제 감정 안전 정복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현재 미달 접수 3명만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8

## 사주학 특강반 모집

매주 수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 오후 4시 ~ 6시)  
▶ 신기문 선생과 송강선생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i-TV. SBS 출연함)  
평생 직업! 특강반에서는 직접 영업할 수 있게 속성강의  
오행의 기초부터 완벽한 이론 및 실제 감정 안전 정복  
(자격증,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옆  
미달 접수 5명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9

지선법사의 운영 특별상담 접수 중  
특별강의 : 사주학, 기문둔감